

피자 좋아~ 탕수육 좋아~ 아이들이 좋아하는 ‘오리고기 요리’ 환절기 감기예방은 물론 두뇌 성장·기억력 쑥쑥~

오리고기는 올레산, 리놀렌산 등 유익한 불포화지방산 비율이 높고, 체내 대사 활동에 필수적인 라이신 등 아미노산이 풍부하다. 또, 칼륨, 인, 마그네슘 등 무기질과 면역력을 강화하는 비타민A 함량이 높아 환절기 감기 예방, 눈 건강에 좋을 뿐 아니라 두뇌 성장과 기억력을

증진해 성장기 아이들과 청소년에게도 좋은 식품이다.

오리고기는 대부분 구이나 백숙, 훈제 등 외식 위주로 소비하고 있지만,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조리 방법을 이용하면 아이들과 집에서 쉽게 오리 요리를 맛볼 수 있다.

오리고기 이용한 요리



▲오리찜쌀탕수육



▲오리불고기피자



▲오리고구마치즈롤까스

◆ 가족 건강별미 ‘오리 찜쌀탕수육’

1. 오리고기는 가슴살 부위로 준비해 새끼손가락 굵기와 길이로 자른 뒤 밑간 후 30분간 재워둔다.
2. 탕수소스는 당근, 오이, 양파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소스 재료와 함께 냄비에 넣고 끓인 후 물에 전분을 풀어 걸쭙하게 농도를 맞춘 뒤 따뜻하게 둔다.
3. 밑간한 오리고기는 찜쌀가루에 굴려 묻힌 뒤 튀김옷에 버무린 후 180℃로 달궈진 튀김기름에 넣고 바삭하게 튀겨낸다.

◆ 안심 피자 ‘오리 불고기 피자’

1. 오리고기는 뼈가 없도록 손질해 굵게 다진다.

2. 분량의 불고기 양념을 넣고 조물조물 주물러 10분 정도 재우고, 팬에 볶아낸다.
3. 다른 팬에 토르티야를 깔고 위에 토마토소스를 고루 바른다.
4. 그 위에 다진 양파와 피망, 볶은 오리고기, 블랙 올리브를 올리고 모차렐라치즈를 넉넉히 뿌린다.
5. 180℃ 정도로 예열한 오븐에 오븐 팬을 얹고 5분~7분 정도 노릇하게 구워내면 완성.

◆ 달콤 쫄득 ‘오리 고구마 치즈롤까스’

1. 오리고기는 가슴살로 준비해 얇게 썰어가며 넓게 저민 뒤 칼등으로 다져 밑간한다.
2. 고구마는 껍질째 푹 삶은 뒤 뜨거울 때 껍질

을 벗기고 곱게 으갠 후 마요네즈, 설탕, 소금을 넣고 버무려 고구마 매시를 만든다.

3. 밀간한 오리 가슴살 위에 고구마 매시를 고루 펴 바르고 위에 모차렐라 치즈를 고르게 얹은 후 김밥 말듯이 만든다.
4. 돌돌 만 오리고기를 밀가루, 달걀 물, 빵가루 순으로 옷을 입히고 170℃로 달군 튀김기름에 넣고 속까지 바삭하게 튀겨낸다.

◆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만찬
‘오리가슴살구이’

1. 오리 가슴살 2쪽은 안팎으로 소금, 후춧가루를 넉넉히 뿌리고, 껍질 쪽에 칼집을 잔잔히 넣는다.
2. 팬에 달구어 껍질 쪽이 아래로 가도록 놓고 노릇할 때까지 조리한다. 다시 뒤집어서 오리의 색이 변할 때까지 조리한다. 오리 껍질에서 기름이 많이 나오므로 여분의 기름은

버리지 말고 보관한다.

3. 소스 팬에 미림 1컵과 간장, 정종 반컵씩을 넣고 강불에서 1분 정도 끓이며 알코올 성분을 날려준다. 이렇게 조리한 오리와 소스를 작은 냄비에 옮겨 담고 오리를 뒤집어가며 절인다.
4. 대파 1~2대를 한 입 크기로 썰어 팬에 굽거나 그릴에 굽는다. 다진 양파 4큰술과 겨자 2큰술은 섞어서 소스를 만든다.
5. 알맞게 간이 배게 절여진 오리고기를 얇게 썰어서 접시 위에 올리고 겨자소스와 구운 파를 곁들여 낸다.



▶하이닥 [2016.10.06] 중앙일보 [2016.10.15]

2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 ‘나쁨’...호흡기에 악영향
독소배출 ‘오리고기’가 제격!

미세먼지 수치가 나쁨까지 올라가는 상황 속 미세먼지가 심할 때 섭취하면 좋은 음식이 시선을 모은다.

미세먼지의 습격이 연일 이어지자 한 네티즌은 “낮에 여섯 시간 정도 야외에 있었더니 목이 몹시 따갑고 붓는다. 미세먼지 싫다” 등 불편한 반응을 보였다.

미세먼지 수치가 이처럼 나쁠 경우에는 물을 많이 마시거나 녹차, 도라지차 등 따뜻한

차를 마셔 기관지가 건조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또한 중금속과 독소 배출을 위해 풍부한 섬유질을 가진 미역, 다시마, 파래 등 해조류나 독을 중화하는 오리고기를 먹는 것이 좋다.

이 외에도 항산화 효과를 가져 목의 염증을 가리앉히는 배, 혈액순환 촉진을 돕는 마늘, 기침을 완화해주는 도라지 등의 섭취도 권장된다.

▶데일리한국 [2016.11.06]

가을보양식 ‘더덕오리주물럭·한방오리뼈탕’ 소개 SBS ‘생방송 투데이’ … 비법 카레더한 감칠맛 인기



가을 보양식 ‘더덕오리주물럭’이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11월 11일 저녁 방송된 SBS ‘생방송 투데이’에서는 ‘풍문으로 들었소-기(氣) 살리는 더덕오리주물럭 편’이 전파를 탔다.

인천 계양구 방축동에 위치한 더덕오리주물럭 전문점은 단골 손님으로 늘 인산인해다.

더덕오리주물럭은 더덕과 오리를 따로 양념에 버무려 맛을 잡은 이 집의 대표 메뉴다. 오리주물럭 양념은 특급 비법인 카레를 더해 10일 이상 숙성시켜 맛을 더하고, 더덕은 따로 다른 양념에 무쳐 한 냄비에 담아낸다.

서비스 메뉴인 한방오리뼈탕 역시 이 집의 인기 메뉴다. 감자탕을 연상시키는 모양새의 한방오리뼈탕은 오리 뼈와 각종 한약재를 아끼지 않고 넣어 5시간 우려낸 육수가 더해져 깊은 감칠맛을 낸다.

▶티브이데일리[2016.11.11]

전국 고기섭취 지도 나왔다 돼지고기-강원, 닭고기·오리고기-서울 주민이 가장 많이 섭취

돼지고기는 강원,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서울, 소고기는 부산·울산·경남 주민이 가장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희대 식품영양학과 윤기선 교수팀이 지난해 7월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성인 남녀 1,500명을 1대1로 면접 조사해 50가지 축산식품 섭취량과 섭취빈도를 분석해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최근호에 게재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식육 종류별 1인당 섭취량은 돼지고기의 경우 강원도(15.9kg), 닭고기는 서울(7.3kg), 소고기는 부산·울산·경남(7.8

kg), 오리고기는 서울 시민(2kg)이 1위를 차지했다. 대전·충남·충북 주민은 1인당 연간 돼지고기 5.4kg, 닭고기 3.1kg, 소고기 2.2kg, 오리고기 0.7kg을 섭취해 전국 시·도 중 축산식품을 가장 적게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섭취하는 축산식품의 가짓수는 서울이 최다, 충청이 최소를 기록했다.

서울 시민이 한달에 1회이상 섭취하는 축산식품 수는 23개였지만 대전·충남·충북 주민은 14개에 그쳤다.

▶매일경제 [2016.10.27]

정부, AI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 전국 축산농가 모임자제 · 농장 출입통제 강화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했다.

AI 위기단계는 관심과 주의, 경계와 심각 등 네 단계로, '경계' 단계가 발령되면 전국 축산농가에 대한 모임자제 명령이 내려진다. 이와 함께 전국의 모든 도와 시, 군에 AI 대책본부와 상황실이 운영되고 농장 출입통제와 소독 예방 활동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23일 "최초 의심축 신고일인 11월 16일 이후 1주일 만에 2개도 4개 시·군(전남 해남, 무안, 충남 음성, 청주)에서 고병원성 AI(H5N6형)가 발생했다"며 "이후 경기 양주, 전북 김제, 경기 포천에서 의심축이 계속 신고되는 등 서해안 지역의 확산 조짐과 전국적인 추가 발생이 우려된다"며 위기경보 격상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이번 고병원성 AI는 국내에선 첫 발견된 새로운 유형으로 과거 발생했던 유형(H5N8형)에 비해 병원성이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내로 계속 들어오는 겨울 철새로 인해 농가 전파 위험성이 여전히 높은 탓에 타 지역으로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농식품부는 전날(22일)에도 경기 포천 소재 산란계 농장(22만9,000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축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이달 25일경 판정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AI가 확진된 지역은 전남 해남(산



란계), 충북 음성(오리), 전남 무안(오리), 충북 청주(오리) 지역 4개 농장이며, 경기 양주(11월 20일), 포천(11월22일) 의심축 신고 건에 대해 정밀검사 중이다. 또 이미 이번 AI로 지금까지 확진 농장과 인근 농장 31곳에서 닭과 오리 51만8,000마리가 매몰처리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위성항법장치(GPS) 차량정보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발생경로를 추적하고,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를 KT의 빅데이터 분석과 연계해 예측된 위험지역에 홍보해 방역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역 취약지역에 대한 매월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도축장 등에 대한 방역실태 점검도 강화한다.

▶파이낸셜뉴스 [2016.11.23]

당정 “AI 확산방지위해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11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류인플루엔자(AI)관련 당정간담회에서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우 국방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나란히 서 있다.



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람의 출입통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철새도래지에서의 철새 축제는 당분간 열지 않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11월 24일 최근 발생한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철새도래지 예찰을 강화하고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연례적으로 AI가 발생하는 지역은 닭이나 오리 사육 자체를 중장기적으로 규모화, 집단화하기로 결정했다. 예산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대책비와 국민안전처 특별교부금 등이 있어 지원·보상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AI 관련 당정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당정간담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현재 9건이 신고됐고 5건이 확진돼 51만9,000마리가 살처분됐다. 모두 발언에서 93만마리가 살처분됐다고 했는데 언론보도를 인용한 것으로 확인 결과 51만9,000마리”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AI 발생이 빈발하는 지역의 경우 사육 자체를 집단화·규모화하기로 했다. 집단 관리 체제를 도입해 방역에 더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미다. 농림부는 현재도 집단화·규모화를 추진 중이며 소, 돼지 등 가축에 대해서도 방역시설을 확충해 집단화·규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철새 도래지에 대해서는 예찰을 강화해서 특

당정은 최근 발견된 고병원성(H5N6) AI에 대해 인체감염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417명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질병관리본부와 농림부는 중국의 경우는 사인이 분명치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어느 경우에도 닭과 오리는 익혀서 먹기 때문에 절대로 인체감염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인체간 감염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 증명된 바 없다는 게 당정의 설명이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안타깝다. H5N6가 전파 속도가 빨라 방역상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조금 더 관련기관들이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인체 감염 관련 부분은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부서가 정확히 조사해 안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종사자들도 안전 조치를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AI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농림부에 600억원의 대책비가 편성돼 있고 이중 414억원이 집행, 186억원이 남은 상태다. 김 정책위의장은 “사태가 심각해져 보상액이 늘어날 경우 국민안전처 재해안전 특별교부금이 있어 지자체와 협조해 필요시 지원할 것”이라며 “별도로 농식품부 내에도 재해대책비 1,000억원이 있고 기획재정부 등 국가 전체가 갖고 있는 예비비도 있어 재원 걱정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뉴스1 [2016.11.24]

닭·오리 도축하려면 소독필증 휴대해야 전남도, “무안 육용오리 시 확진…차단방역 강화”

전라남도는 해남 산이면 산란계 농장에 이어, 무안 일로읍 육용오리 농장에서 H5N6형 고병원성 AI가 확진판정을 받음에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소독필증 휴대 의무화 등 차단방역을 강화한다고 11월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발생 농가 반경 10km를 방역지역으로 정해 가금과 축산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고, 모든 시·군으로 거점소독시설 설치를 확대해 21일부터 본격 가동하고 있다.

또한 모든 축산차량은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소독필증을 휴대토록 하고, 24일부터 소독필증을 휴대하지 않은 경우 도축을 불허키로 했다. 전라남도는 시군 거점소독시설 운영 및 농장·철새 도래지 소독 강화로 인한 시군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긴급예비비 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11월 20일까지 이

틀간 전국 일시 이동 중지 상태에서 축산농가 및 축산차량 일제 소독을 실시했으며, 또한 21일 추가 확산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행정부지사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 긴급회의를 소집해 차단방역을 재차 강조했다.

권두석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는 야생조류에서 검출된 유형과 동일하므로 농장에서는 매일 아침 작업 시작 전 농장에 떨어진 야생조류 분변을 제거한 후 농장 내외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또한 농장 출입차량은 반드시 소독필증을 확인 후 출입을 허용하고, 매일 닭·오리 임상예찰을 실시해 의심축 발생 시 즉시 신고(1588-4060)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시아경제 [2016.11.22]

‘양돈·가금 축사 표준설계도’ 국토부 승인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는 양돈·가금 축사 표준설계도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 개발한 축사 표준설계도는 돈사의 경우 일관 사육방식으로 번식돈사, 자돈·육성돈사 3종류이고, 가금은 산란계사, 육계사, 오리사 등 3종류이다. 또한 ICT 융복합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농가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축사 표준설계도는 11월 농협축산정보센터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농협 축산건설팀부 관계자는 “이번에 보급되는 표준설계도는 설계도면 및 해설서로 구성돼 있으며 축산농가에서는 표준설계도를 활용하면 설계비를 절감할 수 있고 복잡한 인허가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농어민신문 [2016.1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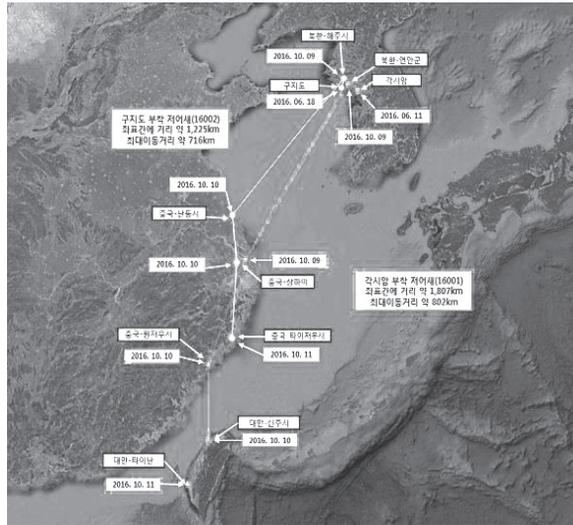
서해 저어새 중국연안과 대만으로 이동 고병원성 AI 이동경로 밝혀지나

우리나라 서해 무인도에서 번식한 저어새의 이동경로를 추적한 결과, 이 새가 서해안을 지나 중국 연안과 대만으로 날아간 것을 확인했다. 이는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유입경로를 알아내기 위한 연구의 일환인데 이 새는 월동후 내년 봄에 국내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이동이 확인된 저어새 2마리는 올해 인천시 강화군 구지도에서 번식한 개체로 7월초 번식지를 떠나 북한 황해도 연안군과 강화군의 갯벌에서 자라다 지난 9일 중국과 대만으로 이동했다. 이동경로를 알아내기 위해 이 새들에는 위치추적기를 부착했다.

저어새가 서해를 건너는 시간은 12시간 이내였으며 이동한 총거리는 1,200~1,800km에 이르렀다. 최종목적지는 대만과 홍콩 등지로 추정됐다. 이들 국가는 고병원성 AI 발생국으로 월동후 내년 봄에 국내로 되돌아올 것으로 판단돼 검역본부는 저어새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모니터링을 통해 저어새의 남하



▲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밝힌 저어새 이동경로

와 북상 루트 및 시기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여름철새의 이동경로를 분석해 고병원성 AI 유입 위험시기와 전파가능성을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검역본부는 고병원성 AI 예찰을 위해 위치추적기 335개를 야생조류에 부착 중에 있다.

▶부산일보 [2016.10.26]



구제역·AI 감염가축 소각해 퇴비 활용 농식품부, 방역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매몰·소각처분 병행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에 걸린 가축을 매몰하는 대신 소각해 퇴비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월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구제역·AI 방역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가축을 매몰할 경우 2~3년 후 또다시 재처리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대안을 생각해봐야 한다"며 '앞으로는 구제역과 AI에 감염된 가축을 소각해 처분하는 방식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과거에는 한 번에 감염 가축이 대량으로 발생해 소각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지만, 백신 접종 등으로 구제역과 AI에 걸리는 가축의 수가 현저하게 줄어 소각해 처리하는 방법이 환경적으로도 덜 해롭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우선 국비와 지방비 4억 원가량을 투입해 내년 '살처분 가축 이동식 열처리 장비' 2대를 건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당 장비는 구제역 및 AI가 발생한 현장에서 이동해 감염된 가축을 섭씨 170도 이상에서 8시간 이상 태운 뒤 사체를 분쇄·건조한다. 소



와 돼지는 한 번에 10~20마리씩, 닭과 오리는 2천 마리가량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가동 후 발생하는 잔재물은 농가 퇴비업체를 거쳐 재활용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축 매몰지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가 상수원과 지하수, 토양 등을 오염시키는 등의 환경 피해를 최소화

하고, 가축 매몰지도 점차 줄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정기적으로 백신 접종을 점검하고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는 백신 개발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등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2016.11.9]



'가금류 도축검사 공영화제' 개선된다

기존 문제	개선 방향
'가금산물 신뢰 확보' 출발 인력부족 시작부터빠거덕 공수의사들 연장근무 꺼려 원하는 시간에 도축 불가능	방역본부 소속된 수의사들 공수의 위촉 등 적극 활용 근무시간 탄력·처우도 개선 요청한 날짜·시간대에 도축

닭고기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지목돼온 '가금류 도축검사 공영화제도'가 가금단체가 요청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10월 26일 농식품부는 오리협회와 계열업체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금단체 현안건의 관련 간담회'를 열고 현행 도축검사 제도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2013년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 개정 에 따라 가금류 도축검사 실시 주체가 기존 해당업체 소속 책임수의사에서 시·도 소속 공무원으로 변경됐다. 2014년 7월 일평균 도축수수 8만수 이상 도축장 8개소를 시작으로 2015년부터 5만수 이상, 올해 1월부터는 전국 모든 도계장과 도업장까지 전면 시행됐다. 정부는 '가금류 도축검사 공영화' 제도 도입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사를 통해 가금산물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정부의 예상과 달리 '가금류 도축검사 공영화' 제도는 출발부터 삐걱댔다. 특히 검사인력 부족 문제와 업체가 요구하는 시간대에 도축을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 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어떻게 개선되나

이에 농식품부는 가금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검사 공영화제도의 근간은 유지하되 업계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도축업체가 요청하는 날짜와 시간대에 도축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검사인력 확보 및 검사관 처우개선은 수용하고, 우수도축장에 대한 자체 검사 인정과 도축검사 수수료 지원은 장기 검토한다는 것이 개선안의 골자다.

먼저 부족한 도축검사관 인력 충원을 위해 방역본부 소속 수의사를 시·군을 통해 공수로 위촉한 뒤 시·도에서 도축검사관으로 임명해 휴일 및 야간근무에 우선 배치 후 운영결과를 평가해 확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공수의 및 농·축협 소속 수의사 등을 대상으로 추가 공수의 위촉, 교육 후 검사관으로 임명해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축산경제신문 [2016.11.03]

“축산물 포함, 수급·유통·수출에 최선



여인홍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은 11월 4일 양재동 소재 aT센터에서 한국농축산연합회를 비롯해 한국신지식농업인회,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한국시습협회 등 농민단체장 22명을 초청한 가운데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농민단체장들은 △중국 소비시장 판로개척에 대한 명확한 계획 수립 △aT의 축산물 수출사업 확대 △안정적인 수급조절 등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했다. 축산업계에서는 축산물 수출사업 확대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다. 김병은 한국오리협회장은 “현재 aT는 세계 축산시장에 대한 분

석과 조사도 하고 있지 않아 축산물 수출에 관심이 미비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김근호 한국토종닭협회장도 “축산업계에서는 농축산물의 수출 중 축산물 수출량이 10%밖에 달하지 않아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며 “최근 토종닭협회에서 AI(조류인플루엔자)에 대응코자 AI청정국인 키르기스스탄에 수출전진기지를 준비하고 있으나 정작 농식품수출을 전담하는 기관인 aT는 전혀 모르고 있는 등 축산물 수출에 대한 관심이 적다”고 성토했으며 관심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여 사장은 “축산물을 포함한 모든 농축산물에 대한 수급·유통·수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언제나 농업인들의 일익을 위한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농수축산신문 [2016.11.07]

충남도 농업기술원, “농가 경영컨설팅 가능”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은 종계와 토종닭, 오리 등 세 가축에 대한 ‘표준경영진단표’를 개발, 농가에 보급한다고 11월 6일 밝혔다.

경영진단표는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활용하는 문진표처럼 전문지도사가 농가 경영 상태를 진단한 후 처방하는 것으로, 경영 컨설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체크리스트다. 종계와 토종닭, 오리 등의 가축은 가금류 농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농가의 신소득원으로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경영진단표를 필요로 해왔다. 그러나 축산농가가 소수라는 이유로 경영진단표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컨설팅도 받지 못했다.

이번에 개발한 경영진단표는 크게 농가 일반 현황과 경영 성과지표로 구분되고 세부평가 진단표는 영농시설 현황, 환경 관리, 병충해 관리, 경영관리 등으로 나뉜다. 이 경영진단표는 특히 답변을 정리하면 항목별 점수가 도출돼 농가의 강점 또는 약점을 파악할 수 있다. 도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과 이철휘 연구사는 “앞으로 경영진단표에 대한 실증을 시행, 현장에 맞게 수정보완한 후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보급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뉴스투데이 [2016.11.06]